

# '흑룡의 해' 용이 큰 바다를 만나다

## 용의 해 불교 소사

680년 무상 스님 출생  
860년 장흥보림사 창건  
1520년 서산 대사 탄생

■680(신라 문무왕 19년) > 우리나라 스님 중 최초로 중국에서 선을 배워 중국인을 교화한 송계 무상 스님 출생

■740(신라 효성왕 4년) > 심상 스님이 처음으로 일본 금중도량에서 (화엄경)강의 > 진표율사 정계(淨戒)받음

■800(신라 애장왕 1년) > 성주산문을 개산한 무열 스님 출생 > 백옥사 청동약사여래입상 조성 > 경주 입실역 양각보살좌상 조성

■860(신라 헌안왕 4년) > 전남 장흥 보림사 창건

■920(고려 태조 3년) > 왕경과 세경의 탑수리

■1220(고종 7년) > 고종 대전관에서 보살계 받음

■1340(충혜왕 1년) > 고려 최후의 유식학자 해원 스님 입적 > 중국 원나라 고려불경요청

■1400(조선 정종 2년) > 송광사(수선사) 중창 > 화상사 석가모니부처님과 오백나한상 조성

■1460(세조 6년) > 매월당 김시습 (탕유관동록후지)지음 > 간경도감 신설, (석보상절) 간행

■1520(중종 15년) > 지리산 벽송사 창건 > 해인사 대장경 1부 인출 > 청허 휴경 스님 출생 > (선종영가집)간행

■1940 > 2월 24일 용성 스님 입적 > 4월 8일 영전 은해사에서 오산불교학교 개교식 > 5월 강화 전등사에서 목각판 묘법연화경 발견 > 5월 30일 중앙불교교육원 이사회 개최, 중앙불교전문학교를 해화전문학교로 교명 변경, 흥아(興亞)신설 > 7월 선학원 창씨개명 상담소 설치 > 7월 7일 조선불교 선교양종총본산, 총본사 대웅전에서 불교위령대법회 개최 > 9월 5일 영등포경찰서 관내 스님초청 시국간담회 개최 > 9월 16일 종교단체법과 관련 '종교가 간담회' 개최 > 9월 17일 석왕사, 전물장병위령 및 황군무운장구기원 대법회 개최 > 11월 9일 철원 삼원사 불교강연회 개최 > 11월 28일 '불교의식체제와 불교중흥'을 위한 31본산 주지회의 개최, 총본사 설립 협의 > 12월 2일 마곡사에서 승려대회 개최

■2000 > 1월 고려대장경 전산화 완성

## 용은 우리곁에 늘 가까이 있는 존재

2012 임진(壬辰)년 새해가 밝았다. '흑룡의 해'라 불리는 올해를 상서로운 해라며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들이 많다. 기업들은 '흑룡의 해'를 이용한 대대적인 마케팅도 벌이고 있다.

올해가 '흑룡'이라는 범상치 않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음양오행사상에서 비롯된다. 임진년 천간(天干)의 임(壬)은 오행으로 수(水)에 해당하며 색깔로는 검은 색을 의미한다. 임은 거대한 대해(大海)를 가리킨다. 대해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겉게 보인다. 용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대상이기도 했다. 즉, 물과 관련이 깊다. 임진년은 용이 드넓은 바다를 만난 해이니, 물고기가 물을 만나고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에 비할 바가 아닌 좋은 해이다.

### 용은 반신족 뜻했다

용은 불교와도 관련이 깊다. 불가에서 부처님 밭그릇을 항용발(降龍鉢)이라 칭하고, 큰스님을 용상(龍象)으로 일컫고, 선방의 소임을 적어 붙이는 방을 용상방(龍象房)이라고 하는 등 용을 비유한 용어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전에도 용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에 앞서 서양의 드래건(Dragon)을 동양에서 '용'이라고 번역했듯이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 어떤 단어를 중국인들이 용이라고 번역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불교 경전의 용은 본래 산스크리트어 나가(nāga)의 번역어로 사람의 얼굴을 했으나 몸은 뱀의 형상을 한 전설 속의 반신족(半神族)을 뜻한다. 이 '나가'를 용·용신·용왕 등으로 한역했다.

용왕이 수호하는 것들 중에는 바다와 연못, 냇가 등 물과 관련된 장소가 많다. 또 구름을 불러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용왕들의 일이다. <대방광대집경(大方等大集經)> '일장분송사품'(日藏分送使品)에는 "세상 어디든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용왕이 머물러

수호하고 있다"고 전한다. 사가라(娑伽羅) 바루나(婆婁那) 덕차가(德叉迦) 보호대행(寶護大行) 구사라(瞿婆羅) 바소바(婆蘇婆) 호로구자(呼盧俱叉) 바사무구자(婆私無俱叉)의 여덟 용왕은 바다 속을 지키고, 대해(大海)의 물을 늘이거나 줄이는 역할을 한다.

성자가 머무르는 장소를 수호하는 용왕도 있다. 흔히 불교에서 불·법·승 삼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도 등장하는 용왕을 말한다. 특히 <법화경(法華經)>에 용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먼저 <법화경> '서품(序品)'에는 불법을 지키는 선신(善神)으로 존경받는 난타(難陀) 발난타(跋難陀) 사가라(娑伽羅) 화수길(和修吉) 덕차가(德叉迦) 아나비달다(阿那婆達多) 마나사(摩那斯) 우발라(優鉢羅)의 여덟 용왕이 등장한다.

뛰어난 인물 일컬어 용이라 칭하기도  
용은 불법과 물을 수호하는 역할 외에도 제왕을 상징하거나 뛰어난 인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이 인도·중국의 용이 한반도로 전래되는

신라 문무왕은 '용' 되기를 서원  
호국불교와도 관련깊은 영물

과정 속에 용의 긍정적 이미지들을 모두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진흥왕 때 짓기 시작했다는 황룡사 창건설화나, 죽은 후에 나라를 지키는 용이 돼 불교와 신라를 수호하겠다는 문무왕의 이야기 등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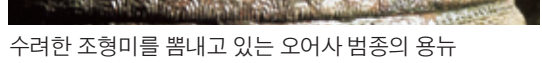
용은 범종 등 문화재에도 많이 사용돼 왔다. 거대한 범종을 지탱하는 용뉴와 중생들에게 불음(佛音)을 전한다는 운판에는 어김없이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용의 모습 가운데에는 물고기 몸에 용의 얼굴을 하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목어(木魚)도 있다. 이는 어변성룡(魚變成龍) 즉, 물고기가 변해 용이 되는 것을, 깨달음을 얻어 해탈한 것에 비유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운사 내소사 수덕사 신록사 전등사 파계사 화엄사 용문사 봉암암 부석사 삼막사 등의 목어가 그렇다. 이외는 달리 몸통 전체가 물고기인 목어도 있는데 이는 물고기가 늘 눈을 뜨고 있는 데에 착안해 대만과 흡유를 쫓는 상징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상의 목어는 마곡사 용주사 월정사 은해사 통도사 등에서 보여 진다.

용은 문화적으로 인도-중국-한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상징물이자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존재였다. 2012년 새해 용이 비상하듯 제반 문제들이 원만히 풀리고 행복한 한해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특히 사부대중 각자가 불법을 수호하는 용의 역할처럼, 자신보다 약하고 어려운 중생들을 수호하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하는 이들의 바람이 많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수려한 조형미를 뽐내고 있는 오사사 범종의 용뉴



제왕을 상징하는 용은 불법의 수호신장 역할도 수행한다. 통도사 십이자비(十二支幡)중 '용(辰)'

조계종 전장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파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힘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사주학의 새 지평을 연

# 사주대학 상,하

석상정 스님은 고대 근대 명리 사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세기에만 명리학 역사상 처음으로 100% 적응하는 명리학의 핵심인 체와 의식이분법의 원리를 정립하여 명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명리학계의 찬사와 돌풍을 일으킨 책이다.

체와 의식 이분법으로 전생업보론, 성격독심술, 원근법 등을 사주와 이치를 소상히 기술하여 초보도 독학이 가능하다.

판매처: 인터넷 서점 yes24, 인터넷, 교보문고 등 전국유명서점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 됨

# 목초수액시트

잠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몸속 노폐물 등 제거, 아침이 상쾌! 가뿐!

new

발바닥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전 발바닥에 붙였다 떼어내면 불필요한 수분이 갈색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가능한 불필요한 수분 흡수 갈색변화 눈으로 직접 확인!!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 팔,다리, 무릎이 안 좋으신분
- 어깨,허리때문에 고생 하시는분
- 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 몸이 무겁거나 항상 피로 하신분
- 오랜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 가사에 지친 주부님
- 공부하는 수험생
- 연로하신 노인분

주문 및 상담 02)444-595 / 010-7255-6668

주문즉시배달 (1~2일) www.BB21.com

# 법성계 불자 건강카드 12

만고의 진리인 법성계에 '파동에너지 발산용 칩'을 장착하여 뇌파균형에너지가 작용되어 몸에 지니기만 하면 신체가 바르게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차 건강해지며 남녀노소, 체질,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 없이 도움되는 획기적 기능카드입니다.

'법성계 불자 건강카드'는 몸에 지니고 12걸음을 걷는 순간,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 법성계공덕 + 건강기능 + 전자파유해성중화기능 + 수액파유해중화기능
- ◆ 사용법: 카드비닐을 개봉해야 에너지가 발산되며 1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봉후 카드 하단에 개봉날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은 남녀공용으로 지갑,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뇌기능의 핵심인 뇌파의 균형작용활성화로 인체의 좌우 균형을 잡아 소화기, 비뇨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생체기능을 향상하여 불편했던 건강이 점차 개선됩니다.

(개발자: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연구개발원 원장 김중석) · 국내 실용신안등록 2건 (제370432010호) · 미국 의료기기등록 (제370432010호)

방문하시는 신도분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50장이상 구입 시 사찰명과 스님 법령 인쇄하여 드립니다.

총판: 한국불교신도총연맹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 010-3334-5121, 010-8833-1619, 070-8116-5121